

P36. 이혼한 남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과 이혼 후 적응

Parental support and post-divorce adjustment of divorced adult children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박현주*, 한경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Hyun-Ju Park* & Gyoung-Hae Ha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최근 이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혼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혼자들의 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여 이혼자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혼자들은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망보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 간 관계수명의 증가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한국 사회의 이혼자들의 위한 공적인 지원 정책의 미흡은 국내의 이혼자에게 있어 부모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관계망인 부모의 지원을 살펴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혼자의 원가족인 부모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이혼 당사자와 자녀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이혼자와 이혼자의 부모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이혼한 남녀가 받고 있는 부모의 지원 양상과 함께 부모 지원이 이혼자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60대의 이혼한 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해 부모의 지원과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기술통계, t-검증, 중회귀분석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남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그 다음이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의 순이었다. 둘째,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의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지원은 이혼한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지원의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넷째, 부모의 지원이 이혼한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혼한 남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의 양상과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혼자의 세대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이혼자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세대 관계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지원 수준과 그 효과에 있어서 이혼여성과 이혼남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단순한 젠더 이슈의 의미를 넘어 한국 사회의 세대 관계 측면에서 아들의 이혼과 딸의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주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